

喪禮의 현대적 理解

生也一片浮雲起
死也一片浮雲滅
浮雲自體本無實
生死去來亦如然

生也一片浮雲起
死也一片浮雲滅
浮雲自體本無實
生死去來亦如然

喪禮의 현대적 理解

현대 상례의 일정별 진행절차



현대 상례의 1일차 진행절차

1 일 차

임 종



(1 일차 - 1)

임 종 (臨終)

의 미

마지막 숨을 거두는 상태를 말하며 운명, 종신이라고도 한다.

절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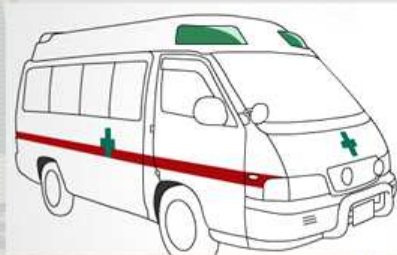
- 임종이 다가오면 가족이나 평소에 친분이 있는 가까운 사람을 모이게 하여, 남기고 싶은 말이나 유언을 기록 또는 녹음하기도 한다.
- 종교가 있는 경우라면 각 종교 별로 임종예식을 진행하게 된다.
-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두려움 및 외로움이 따르게 되므로, 이를 이겨내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가족들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전통사회에서 종신을 자식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로 여긴 것도 이러한 맥락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현대 상례의 1일차 진행절차

1 일 차

입
종

운구 / 안치



안치번호	호기
고인명	故 서성희
성별(나이)	♀ (74세)
사망장소	경북도청방문 사망원인
안치일시	2011년 8월 27일 오후 2시 10분
상주확인	최명수
특이사항	군무지

(1일차 - 2)

운구 / 안치

의 미

사망이 확인된 시신을 이송하고 안치하는 절차로 시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시(收屍)여부를 결정한다.

절 차

- 의전진행 담당자의 도착시점으로,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안치실에 안치하면 의전팀장은 유족과 함께 안치실의 호실과 기계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관과 발인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전통사회의 상례는 집에서 운명하여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수시를 통해 살아나시기를 기원하였던 의례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 습 단계에서 진행되는 반함의 절차에서 입안에 쌀을 물리기에 편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현대의례에서는 대부분 실시하지 않고 교통사고, 화상, 추락사 등 사고사처럼 시신의 형체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현대 상례의 1일차 진행절차

1 일 차

인
종
운구/안치
상
담



(1 일차 - 3)

상 담(相談)

1

의 미

장례식의 진행을 위하여 일정, 장례방법, 빈소의 위치/크기 등 장례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결정하는 절차.

절 차

- 상주는 상조회사 또는 장례식장의 의전진행 담당자와 장례상품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의전진행이 결정되면, 의전진행 담당자는 고객과 협의하여 빈소의 결정과 빈소용품을 설치한 후 양복 대여 등 의전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차후 진행절차에 대해 세부적으로 안내한다.
- 상조회사진행의 경우 장례식장과 협의를 통해 상품중 지원범위에 대해 조정하여야 한다.
- 고객은 상품의 지원범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을 통해 진행절차와 상품의 구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한다.

(1 일차 - 3)

상 담(相談)

2

확인사항

- ① 장례식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빈소 결정)
- ② 장례용품(관, 수의, 상복 등)의 선정
- ③ 영정사진 신청
- ④ 상복(검정양복 대여 및 구입, Y셔츠, 넥타이, 한복) 신청
- ⑤ 제단장식 결정
- ⑥ 장의 차량 예약
- ⑦ 부고 신청
- ⑧ 장례도우미 신청
- ⑨ 장례방법(가족장, 단체장, 사회장, 종교예식 여부 등)확정
- ⑩ 장례일정(염습시간, 발인시간, 매/화장 여부, 장지)확정
- ⑪ 화장시 화장장 예약



현대 상례의 1일차 진행절차

1 일 차

입
종

운구 / 안치

상
담

빈소준비



(1 일차 - 4)

빈소준비

(殯所準備)

의 미

유족과 문상객의 수를 예상하여 적당한 크기의 빈소와 접객실을 정하고 자리를 마련하는 절차이다.

절 차

- 빈소가 결정되면 장례방법에 맞도록 빈소를 차리고, 음식과 제수를 주문한 후, 유족 및 문상객에게 연락한다.
- 입관 전에 상복을 입지 않는 전통을 지키기를 원하는 유족은 입관 의례가 끝날 때까지 별도의 의복을 착용하지 않고, 수수한 복장을 착용한다.
- 근래에 조문시간의 부족으로 입관의 유무와 관계없이 성복을 하게 되는데, 남자 상주들의 상복으로는 주로 검은 양복을 착용한다.
- 영위(靈位)를 모시는 자리인 영좌(靈座)는 교의에 혼백을 놓아 방자를 대신할 대상과 자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습의 절차를 마치면 설치하였으나, 요즘은 발상과 동시에 영좌를 설치하며, 혼백을 만들지 않고 영정사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장례식장의 경우 빈소에 설치된 제단이 영좌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현대 상례의 1일차 진행절차

1 일 차



핸드폰 문자 부음



신문부음

(1 일차 - 5)

부 고(訃告)

의 미

고인과 유족의 친지/친척, 지인, 단체, 회사 등에 사망사실을 알리는 절차이다.

절 차

- 부고에는 성명(고인명, 상주명), 빈소 및 연락처, 장례기간(안치 및 발인일시)과 장지를 포함하도록 한다.
- 전통적으로는 호상(護喪)명으로 부고를 하지만, 현대장례에는 상주명(喪主名)으로도 하기도 한다.
-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 신문부고를 원할 경우 일간지에 무료로 부고신청을 대행해 주며, 부고장 원고를 작성해 준다.
- 신문 하단의 광고부고는 신문사와 직접 상의해야 한다.

현대 상례의 1일차 진행절차

1 일 차



(1 일차 - 6)

의 미

부고를 들은 친지/친척, 지인들이 상주를 위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절차이다.

절 차

문 상 (問喪)

- 빈소를 설치하고, 영정안치 후 분향 및 촛불점화를 한 후 직계 순으로 참배하고 문상을 받는다.
- 전통장례에서는 입관을 마치고 성복하고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에서 문상객을 맞았으며, 문상객이 들어오면 일어나 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대장례에서는 대부분 3일장의 짧은 장례일 정상 빈소설치와 영정설치 후 곧바로 문상을 받고 있다.
- 단, 상주는 成服前에는 고인이 운명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성복 후에 고인에게 재배(再排)를 올린다.
- 조상(弔喪)이나 조문(弔問)이라는 용어는 의미상 문제가 있고 문상이라는 용어가 가장 무난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2002년 산업자원부와 기술표준원의 장례서비스표준화에서도 문상(問喪,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을 위로하는 일)으로 정의하였다.

현대 상례의 2일차 진행절차

1 일 차 2 일 차

인
종

운구 / 안치

상
담

민소준비

무
고

조
문

입
관





(2 일차 - 1)

염 습 (殮襲)

1

의 미

시신을 정결하게 씻기어 수의를 입히는 襲의 절차와 시신을 殮布로 묶는 절차를 합한 절차를 말한다.

절 차

- 전통의례에서는 습 이후에 염을 하는 것으로 습襲이 올바른 용어이지만 현재에는 염습으로 사용되고 있다.
- 습(襲)은 시신을 목욕시켜 수의를 입히는 절차로 목욕의 경우 전통적으로는 향나무나 쭉을 삶은 물을 사용하였으나, 요즘에는 소독된 알콜 솜이나 거즈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 고인에게 수의를 입힐 때는 미리 수의의 아래 위를 구분하여 단번에 입힐 수 있도록 옷을 겹쳐서 아래 뒷옷을 연결하여 준비하여 놓는다.
- 수의는 원래 좌임이라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으나 우임이 맞으며, 전통사회에서는 평상시 입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입었으므로 우임(오른쪽으로 여밈)을 하여야 하며 옷고름은 매지 않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다.

(2 일차 - 1)

염 습 (殮 襲)

2

절 차

- 염(斂)은 소렴(小斂)과 대렴(大斂)으로 나뉘는데, 소렴은 수의를 입힌 시신에 옷가지를 더하여 소렴포로 싸는 절차를, 대렴은 소렴 후에 신분에 따라 옷가지를 더하여 싸고 대렴급과 대렴포로 묶는 절차를 말한다.
- 매질은 21매듭으로 묶여지는 것으로 현재는 매장 탈관의 경우에 사용한다.
- 이렇게 대렴으로 감싼 시신을 관에 넣는 입관(入棺)의 절차가 이어진다.
- 입관 후 빈곳이 있으면 흔들릴 염려가 있어 고인이 입던 옷 중에서 천연섬유로 된 옷들이나 기성품으로 된 보공을 빈 곳에 채운다.
- 평소 고인의 유품 중에서 염주나 십자가, 성경 등을 넣기도 하나 화장할 경우는 환경오염과 화장장의 규제로 인해 관에 부장품을 넣을 수 없다.
- 대렴/입관을 마치면 관보를 덮고 명정을 받치 쪽에 세운다.

(2 일차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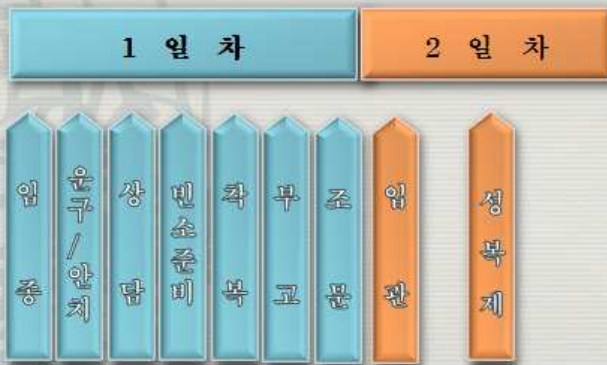
염 습 (殮 襲)

3

절 차

- 전통적으로는 돌아가신 날에 습을 하고, 2일째에 소렴을 하고, 3일째에 대렴을 하였으나 요즘에는 습과 염, 입관의 절차를 연이어서 한꺼번에 행함으로써 의례의 구분이 없다.
- 또한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염습을 하는 경우 남자의 염은 남자가, 여자의 염은 여자가 하였으나, 요즘에는 정규교육과 자격증을 소지한 장례지도사가 이를 담당한다.
- 염습은 현대 장례절차 중 고인과 작별하는 가장 중요한 의례적 절차의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유족들이 참관할 수 있는 시간을 결정하도록 한다.
- 종교의식을 원할 경우를 대비하여 초기 상담과정에서 입관시간을 여유 있게 정하는 것이 좋다. 입관 전까지 사망증명서류 1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현대 상례의 2일차 진행절차



(2 일차 - 2)

성 복 (成服)

1

의 미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 절차로 상주(喪主)와 복인(服人, 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이 상복을 갖추어 입는다.

절 차

- 전통적인 상복은 굴전제복(屈巾祭服)이 원칙이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검정색 양복이나 한복을 입는 경우가 많다.
- ♣ 남자상복의 착용
 - 한복: 흰색바지저고리에 흰색 또는 검정색 두루마기를 입고 전을 쓰고 행전을 친다.
 - 양복: 무늬 없는 흰 와이셔츠에 검정색 양복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맨다. 검정색 양말과 구두를 신으며, 완장을 착용한다.
- ♣ 여자상복의 착용
 - 흰색 치마저고리를 입고 흰색 버선(양말)과 흰색 고무신을 신는다. 종교나 기호에 따라 검정색 한복을 착용하기도 한다.
 - 양장을 할 경우에는 검은색을 입으며 양말이나 구두도 검은색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더운 여름이라도 긴 소매를 입고 속이 비치지 않는 단순한 디자인의 옷을 선택하고, 악세사리를 치장하지 않도록 한다.

(2 일차 - 2)

성 복 (成服)

2

절 차

- 복인은 공히 검은색 천이나 삼베로 만든 완장이나 상장을 착용하는데 상복이 흰색이면 검은색, 상복이 검은색이면 흰색이 좋다.
- 상장대신 흰 꽃을 왼쪽 가슴에 달아도 된다.
- 전통적으로는 성복을 하고 조전(朝奠)과 아침상식을 올린다. 요즘에는 3일장으로 인해 성복하는 시간이 아침으로 정해지지 않아 성복을 한 후 성복제를 지낸다.
- 성복제는 종교 의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 하되 상주의 상장은 탈상까지 한다.
- ❖ 복인 : 부(父)계 8촌, 모(母)계 4촌까지로 한다.
- ❖ 상장(喪章) : 장례를 마친 후 상을 당했다는 표시를 하는 것으로 남자는 삼베로 만든 리본을 왼쪽 가슴에 부착하고 여자는 무명천으로 만든 리본(머리핀)을, 남자의 상일 경우 좌측머리, 여자의 상일 경우 우측머리 부분에 꽂는다. 상장은 장례를 마친 후 탈상 때까지 직계가족만 착용한다.

(2 일차 - 2)

성 복 (成服)

3

절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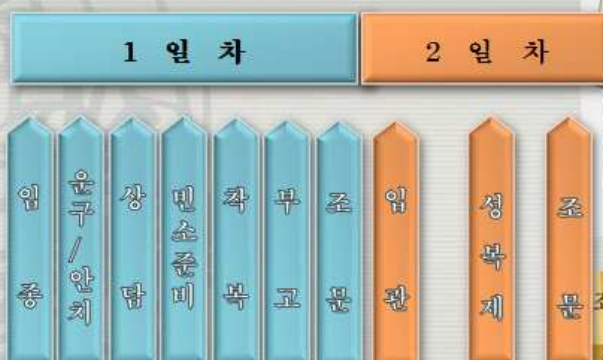
- ❖ 완장(남자 착용) : 완장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가정의례준칙이 나오면서 굴전제복 대신 상주임을 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완장은 삼베로 만들어 졌으며 검은 색의 줄이 그어져 있으며, 직계와 비속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두 줄과 한 줄 그리고 줄이 없는 완장을 사용하며, 착용하는 위치에 따라 남자상에는 좌측에 여자상에는 우측에 완장을 착용한다.
- ① 두 줄 : 아들과 사위, 아들이 없을 시에는 장손이 착용 한다
- ② 한 줄 : 기혼인 복인(만드시 상복을 입지 않고 완장만 착용을 해도 복인이 된다.)
- ③ 무 줄 : 미혼인 복인(주로 손자들이 착용하게 된다)

성복축문
(成服祝文)

維歲次 年 月 朔 日
孤子 〇〇 敢昭告于
顯 日月不居 奄及成服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
清酌庶羞 哀薦服事 尚

- ☞ 敢昭告于 : 삼가 밝게 고 합니다.
- ☞ 日月不居 : 해와 달이 머물지 않고, 세월이 흘러,
- ☞ 奄及成服 : 어느새 성복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 ☞ 夙興夜處 : 이른 아침부터 밤에 이르기 까지,
- ☞ 哀慕不寧 : 슬프고, 그리워하는 마음에 편하지 못합니다.
- ☞ 謹以 : 삼가정성을 다하여
- ☞ 清酌庶羞 :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
- ☞ 哀薦服事 : 슬픈 마음으로, 성복의 일에 드립니다.

현대 상례의 2일차 진행절차



(1 일차 - 6)

조 문(弔問)

의 미

부고를 들은 친지/친척, 지인들이 상주를 위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절차이다.

절 차

- 빈소를 설치하고, 영정안치 후 분향 및 촛불점화를 한 후 직제 순으로 참배하고 문상을 받는다.
- 전통장례에서는 입관을 마치고 성복하고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에서 문상객을 맞았으며, 문상객이 들어오면 일어나 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대장례에서는 대부분 3일장의 짧은 장례일 정상 빈소설치와 영정설치 후 곧바로 문상을 받고 있다.
- 단, 상주는 成服前에는 고인이 운명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성복 후에 고인에게 재배(再排)를 올린다.
- 조상(弔喪)이나 조문(弔問)이라는 용어는 의미상 문제가 있고 문상이라는 용어가 가장 무난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2002년 산업자원부와 기술표준원의 장례서비스표준화에서도 문상(問喪,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을 위로하는 일)으로 정의하였다.

(3 일차 - 1)

비용정산

의 미

발인 전 상주는 상조상품사용에 대한 정산과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각종 비용 등을 정산 한다.

절 차

- 발인 전에 상조회원의 경우는 가입상품가격에 납입금액과의 차액을 지불하고,
- 장례식장의 경우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금액인 안치료, 빈소사용료, 입관실사용료, 전화사용료, 매점 및 식당이용대금, 제사비용 등을 정산 한다.
-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의해 안치실, 빈소, 접객실의 이용료는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로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산정한다.
-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는 발인 당일 새벽에 정산비용을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의 발생비용과 만족은 발인 전까지 현금으로 정산한다.

현대 상례의 3일차 진행절차



(3 일차 - 2)

발인 (發靱)

1

의 미

영구가 상가(장례식장)를 떠나는 절차이다.

절 차

- 영구차량을 확인하고, 영정 1명(반사위, 장손), 운구 조 6~8명을 편성한 후, 발인 준비물품(장갑, 차량리본, 횡대 등)을 수령하고, 안치실에서 시신 확인 후 인수한다.
- 발인장까지 모셔 견전(遣奠)을 지내는데, 흔히 발인제라고 한다.
- 안치실에서 발인장까지 모실 때 불교와 기독교 및 일반적으로는 상(上, 머리쪽)이 먼저 나가고,
- 천주교는 산 사람으로 간주하여 걸어나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下, 다리쪽)가 먼저 나간다.
- 고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장, 단체장, 사회장, 종교행사 등으로 영결식을 하는데, 단체장/사회장의 경우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3 일차 - 2)

발 인 (發靱)

2

절 차

- 영결식의 식순은 일반적으로
개식사 ⇒ 상주 및 복인의 분향제배 ⇒ 고인의 약력소개 ⇒ 조사
⇒ 분향 ⇒ 헌화 ⇒ 호상인사 ⇒ 폐식사의 순으로 하고,
특정 종교일 경우 그 형식에 따른다.
- 일반적으로 발인할 때 순서는 장손이나 장조카가 위패를 모시고,
큰사위나 장조카가 영정을 모시며, 다음으로 영구를 모시고 상주
와 유족이 뒤를 따르게 된다.

발인축문
(發靱祝文)

遣奠祝
發靱祝
靈輜既駕
往卽幽宅
載陳遣禮
永訣終天

- ☞ 靈輜既駕 : 상여에 이미 명예를 메었으니
- ☞ 往卽幽宅 : 이후에 곧 유택에 이를 것입니다.
- ☞ 載陳遣禮 : 상여를 메고, 떠나 보내는 예를 베풀어
- ☞ 永訣終天 : 끝없는 이별이 마침내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현대 상례의 3일차 진행절차



(3 일차 - 3)

장지의례
(葬地儀禮)

1

의 미

발인후 영구차량을 이용하여 장지 또는 화장장으로 운구(運柩)하여 진행하는 절차이다.

절 차

- 발인후 장지 또는 화장장으로 운구(運柩)하는 영구차에는 영정, 영구, 상주 및 유족, 문상객의 순으로 탑승하게 된다.
- 장지로 가는 도중에 평소 고인에게 의미가 있는 곳이나 살았던 곳에 들려 노제(路祭)를 지내기도 한다.

(3 일차 - 3)

장지의례
(葬地儀禮)

2

매장확인사항

- 매장은 운구·하관·성분·위령제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 먼저, 묘지에 도착하여 정해놓은 장지로 이동하는 운구를 하고,
- 미리 파놓은 광중에 관을 내리는 하관 후에는 구의와 명정을 만
듯하게 덮고 광중과 관 사이의 공간을 채워 넣으면서 평지와 같
은 높이가 되도록 하는 평토를 한다.
- 흙을 둥글게 쌓아 올려 봉분을 만드는 성분을 하고, 봉분이 완성
되면 묘소 앞에 영좌를 설치하고 제수음식을 진설해 놓은 후, 고
인의 명복을 비는 위령제를 지낸다.
-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시체매장신고서 작성,
묘지사용증서, 신고자(상주)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3 일차 - 3)

장지의례
(葬地儀禮)

3

화장확인사항

- 화장장 이용절차: 접수 ⇒ 운구 ⇒ 고별 ⇒ 화장 ⇒ 수골
- 화장장 접수: 서울시설관리공단
- 예약상황확인 ⇒ 예약구분 ⇒ 고인/신청자실명확인 ⇒ 신청자
핸드폰인정 ⇒ 예약정보입력 ⇒ 예약일시선택 ⇒ 예약정보확인
⇒ 예약완료 ⇒ 사망진단서 FAX송부(24시간이내)
- ※ 화장장 도착은 당일 예약시간 30분전까지 도착하여 접수절차를
마쳐야 한다.
- 화장장 예약: 예약은 가능한 사람은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
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기타 법
령에 의해 권한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여 가능하다.
- 구비서류: 관련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 접수서류는 반
환되지 않는다. 면제 또는 감면대상자는 해당증명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 일반사망자(자연사, 병사자) 경우: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1부,
등본 1부
- 기타사망자(사고사, 사인미상) 경우: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1
부, 검사지휘서 1부

봉안확인사항

(3 일차 - 3)

장지의례
(葬地儀禮)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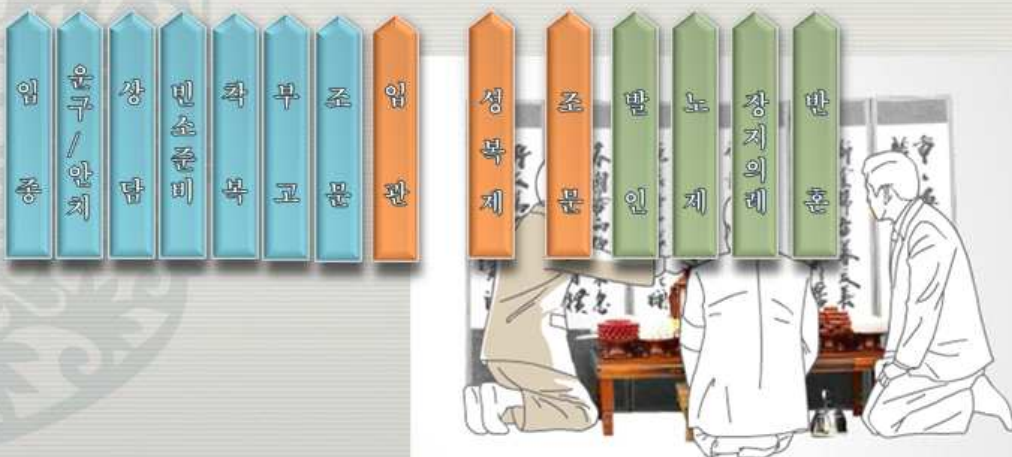
-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 “봉안시설”이란 봉안묘(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봉안당(「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 봉안탑(탑의 형태로 된 봉안기술)등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봉안절차는 봉안은 봉송·의례 및 헌화·안치·종교의례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먼저, 영구차가 도착하면 안치할 봉안시설로 봉송한 후 유골용기를 올려놓고 간단한 의례 및 헌화를 한다.
- 의례가 끝나면 유골용기를 봉안시설에 안치한 후 유족의 종교에 따른 종교의례를 행한다.
- 구비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화장신고필증(또는 화장증명서), 봉안증명서 작성, 봉안시설사용증서, 신고자(상주)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현대 상례의 3일차 진행절차

1 일 차

2 일 차

3 일 차



(3 일차 - 4)

반 혼 (返魂)

의 미

매장을 하거나 화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하고, 혼백과 영정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절차로 반곡이라고도 한다.

절 차

- 일반적으로 매장이나 화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하고, 평토제, 또는 봉안제를 올린 후 혼백과 영정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절차를 의미한다.
- 초우제와 병행하여 반혼제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초우제와 동일하게 인식함으로서 반혼 후 탈상하기도 한다.
- 그러나 반혼의 경우 신주를 만드는 경우에 진행되어야 할 의례인데, 형식만 남아 신주 없이 반혼의 의례가 진행되고 있다.

현대 상례의 4~5일차 진행절차

1 일 차								2 일 차		3 일 차			4~5일차	
임 종	운구 / 안치	상 담	빈소준비	작 복	부 고	조 문	입 관	성 복 제	조 문	받 인	노 제	장지의례	반 혼	잠 우 제



(3 일차 - 4)

초 우 제
(初虞祭)

의 미

반혼한 혼백을 집에 모시고 처음으로 지내는 제사이다.

절 차

- 전통의례의 초우제와 같다. 반드시 장례일 당일에 지내야 하기 때문에 전통장례에서는 집이 멀 경우 도중에라도 지내야 했다.
- 전통의례에서 우제는 신분에 따라 그 횟수를 달리하여 지내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사대부의 예를 기록한 예서에 의해 삼우가 일반화 되었다.
- 우제(虞祭)때부터 상중제의의 절차로 명칭에서도 제사로 명기하고, 상주가 현관이 되어 제사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4 일차)

재 우 제
(再虞祭)

의 미

두 번째 우제를 지내는 절차이다.

절 차

- 본래는 초우제후 첫 유일에 지내는 것이지만, 현대에는 장례일 다음날 동이 트면 제사상을 진설하고, 날이 밝으려고 할 때 지내는 것으로 변하였다.
- 형식은 초우제와 같이 지내고, 재우제를 마치고 난 후 집안정리를 한다.
- 대부분은 재우제는 생략하고 있다.

(5 일차)

삼 우 제
(三虞祭)

의 미

세 번째 우제를 지내는 절차이다.

절 차

- 장례후 첫 강일에 지내는 것으로 제사의 절차는 초우제와 같으나, 현재는 장례를 치루고 3일째 아침 일찍 삼우제를 지낸다.
- 제사 지내는 절차는 초우제, 재우제와 마찬가지로이다.
- 삼우제 후에 성묘를 하거나, 아니면 삼우제를 성묘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 삼우제를 지내고 묘지 또는 봉안시설에 가서 첫 성묘를 할 때 여가족들은 처음으로 봉분을 보게 된다.
- 아울러 상주는 봉분의 상태를 잘 살펴보고 확인하게 된다.



